



2017년 청렴도 평가 최우수기관

2018년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2019년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2020년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청렴소통+

2021. 2nd Vol.8

대구시설공단 소식지



CONTENTS

청렴소통+ 2021. 2nd

Vol.8

Daegu

Infrastructure

COporation



04

청렴편지

06

DICO+ Time Line

- 청렴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2021 신축년 발자취

08

DICO+ Education

- 방방곡곡 청백리탐방!
경주&안동 청렴문화 체험교육
- 반부패·청렴 오해 해소!
찾아가는 청렴교육
- 모두 모여라! 하반기 청렴특강 실시

12

DICO+ PR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거리 캠페인
- 청렴 뮤직비디오 '땃땃해지자'

14

DICO+ NEWS

18

DICO+ Anti-Corruption

- 요점 쏙쏙!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부정청구 거름망! 공공재정환수법
- 청렴 롤모델, 독일로 떠나다
- 떠오르는 기업 핵심 역량! ESG 경영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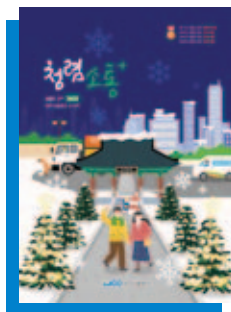
DICO+ EVENT

- 청렴퀴즈 with QR



청렴소통+
2021. 2nd

Vol.8



발행

2021년 12월(통권 제8호/2021년 제2호)

발행처

대구시설공단 청렴감사실(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9)

기획·편집

대구시설공단 청렴감사실 T.053)603-1172

디자인

밝은사람들(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8길 9-4) T.053)660-6600

청렴편지

Daegu Infrastructure COporation

우리는 '청렴(淸廉)'이 모든 업무의 기본이자 화두인 시대에 살고 있다. 공직자라면 항상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 하는 단어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많은 이는 시민, 나아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 수준과 공직자가 인식하는 청렴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의 60%가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 11%만이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와 국민 간의 청렴 인식에 있어서 이처럼 큰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공공기관의 각종 부패 및 비리 사건이 주요인이다. 특히, 최근 모 기관에서 발생한 부동산 관련 도덕적 해이와 내부 정보 사적 이용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희미한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의 등불마저 한순간에 꺼져 버렸다.

'청렴'에 대한 인식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돼 왔다. 과거에는 근면함, 검소함,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는 정직함 등 주로 개개인의 의지에서 비롯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이 강조됐다. 그러나 지금은 '청렴'이라는 단어에서 공정성, 투명성, 상호 신뢰, 소통 및 협업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부정과 반칙이 사라진 신뢰받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청렴의식 함양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대구시설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4년 연속 청렴도 우수 등급 이상을 달성했고, 3년 연속 부패 방지 시책평가 면제 기관으로 선정된 윤리경영 분야 선도 공기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렴 윤리경영 중장기 운영계획의 일환인 '청사진(淸思進)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청렴(淸)만 생각(思)하며 나아가다(進)'와 '청렴한 세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공단에서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을 활용한 언택트 청렴 결의 대회를 개최했고, 대구 전역에 산재한 공단 사업소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소규모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단에서는 전 직원의 청렴관련 법령, 지식 습득을 위해 청렴 소식지와 청렴 윤리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윤리경영 관련 상호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대구경북 공공기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발굴, 시행할 계획이다.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타인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관용으로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는 뜻이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서슬 퍼렇게 엄격한 이율배반적 태도로는 결코 청렴한 조직문화를 이룩할 수 없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지혜, 뚜렷한 소신, 반듯한 직업윤리 의식을 가진 공직자만이 청렴의 참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섬김의 리더십’이야말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대구시설공단 모든 임직원, 나아가 시민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청렴 대구를 위한 신뢰의 등불이 환하게 비춰지길 기원해 본다.



Daegu Infrastructure
COrrporation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최길영

2021. 9. 23.자
매일신문 기고 발췌



대구시설공단 청사진 #2021

청렴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2021 신축년 발자취

1월

- ▶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청렴메시지(문자, 우편 등) 발송
- ▶ 반부패 청렴개선 계획 수립
- ▶ 전 직원 부패방지·청렴실천 서약서 서명 및 청렴결의

2월

- ▶ 협력 및 입점업체 대상 자체 전화설문조사 '청렴만족 해피콜' 시행
- ▶ 전 직원이 함께 풀어보는 e-청렴퀴즈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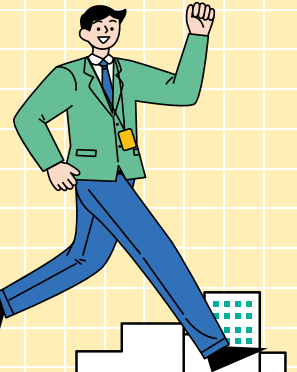
- ▶ '부패는 언택트 청렴은 컨택트' 2021년 청렴결의대회 개최
- ▶ 제1차 청렴옴부즈만 정기회의
- ▶ 청렴문화지수 운영계획 수립 및 전 부서 청렴실적 집계
- ▶ 내부청렴도 취약점 발굴을 위한 내부 청렴수준 진단
- ▶ 나드리콜 운전원 및 디지털 청년 인재 대상 청렴교육

5월

- ▶ 반부패 청렴홍보물품 제작·배부 및 청사진 슬로건 홍보
- ▶ 상반기 외부강의 등 신고실태 점검
- ▶ 주차관리원 대상 청렴 CS 역량강화교육
- ▶ 상반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합동 청렴거리 캠페인

4월

- ▶ 부서별 자율 청렴경영을 위한 '청렴합시데이(DAY)!' 운영
- ▶ 청렴옴부즈만 윤리 서약



6월

- ▶ '청백리 찾아 방방곡곡' 상반기 청렴문화 체험교육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과 MOU 체결)
- ▶ 반부패 청렴 오해 해소를 위한 부서로 찾아가는 청렴교육
- ▶ 신입직원 대상 언택트 청렴특강

7월

- ▶ 2021년 1차 청렴소식지 (청렴소통+ Vol.7) 제작·배부
- ▶ 윤리경영 홈페이지 개편 (온라인 통합신고센터 도입)

8월

- ▶ 제2차 청렴옴부즈만 정기회의
- ▶ 청렴윤리경영 가이드북 제작 및 배부

9월

- ▶ 제3차 청렴옴부즈만 정기회의
- ▶ 입점업체 청렴홍보 캠페인 개최
- ▶ 하반기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거리 캠페인

12월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정기심사
- ▶ DICO 청렴문화지수 결과 공지
- ▶ 목민청렴상 시상
- ▶ 제4차 청렴옴부즈만 정기회의

11월

- ▶ '청백리 찾아 방방곡곡' 하반기 청렴문화 체험교육 (경주 최부자아카데미 MOU 체결)
-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정기심사 준비 및 내부심사원 양성교육

10월

- ▶ 최백영 비상임 감사 취임
- ▶ 대구경북지방공기업협의회(8개 기관) 청렴·윤리경영 공동실천 업무협약 체결



아는 것이 청렴이다! DICO 교육현장

방방곡곡 청백리탐방! 경주&안동 청렴문화 체험교육

...

청렴문화유산 및 주요 유적지 탐방을 통해 선조들의 청백리 정신을 기리고자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 각 지역의 청렴교육 시행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직원들이 다양한 곳에서 청렴 역량을 기르도록 노력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총 66명의 인원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6월 25일, 7월 2일 양일간 참여하였는데, 도산서원 곳곳에 스며있는 청렴한 공기를 만끽하며 공직자로서의 롤 모델인 퇴계 이황 선생의 청빈한 삶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청렴정신 함양을 위한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으로 제3자를 통한, 제3자를 위한 청탁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과 금품 등 수수금지 사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퇴계 이황 선생의 주요 저술 작업과 후학 양성이 이루어졌던 도산서당을 비롯해 제자들이 학문에 열중할 수 있도록 손수 지은 농운정사, 퇴계 선생이 직접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옥진각 등을 탐방하였다.

직원들이 도포와 갓을 갖추어 입고 종묘나 사당에 배알하는 예법인 알모례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별유사의 구렁에 맞춰 전통 예법을 따라 경건하게 절을 하고 제를 올리면서 정돈된 마음과 정갈한 몸가짐을 갖추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서 11월 5일에는 하반기 청렴 체험교육을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최부자택에서 실시하였다. 최부자택의 가훈인 육훈과 육연의 뜻을 깊이 음미하며 옛 선조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되새겼다.

이와 더불어 김거성 국제투명성기구 이사 of 명사 특강을 통해 직원들이 현대판 청백리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부자의 실천적 가르침에 따라 청렴은 개인적 차원의 윤리적 선택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나 조직, 집단이 마땅히 담당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인 점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끝으로 이번 상·하반기 청렴 체험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내년에는 더욱 알찬 교육으로 직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DICO



반부패·청렴 오해 해소! 찾아가는 청렴교육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업무 관련 각종 오해를 해소하고, 반부패·청렴지식을 전파함으로써 공단 전반의 청렴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15일까지 총 311여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 부서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인사, 예산·지출, 업무지시 등 각종 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반부패·청렴제도 및 윤리경영 관련 지식 함양을 통해 조직 내 청렴이해도 향상에 기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역할, 반부패 청렴관련 제도 설명을 비롯해 청렴정신 생활화를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교육 후에 실시된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교육 방법과 취지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부터 청렴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두 모여라!

하반기 청렴특강 실시

공단에서는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제도의 취지와 각종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인사, 예산·지출, 업무지시 등 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고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특강은 공직자의 윤리의식,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주요 신고 및 금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안동YMCA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서구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당 교육인원을 30명 이내, 총 10회로 분할하여 운영하였으며, 교육대상자가 수업을 희망하는 회차에 언제든지 청렴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시민과 함께! We are the 청렴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거리 캠페인

대구시에서는 공공기관 간 청렴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청렴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단에서는 매년 협의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도 2차례 개최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무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5월 20일 개최된 상반기 회의에서는 청렴 뮤직비디오 영상 제작 설명회 및 의견 제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건설팅 및 2021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9월 16일 개최된 하반기 회의에서는 2022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실천의제 및 이행과제 제안 목록을 검토하였으며, 협약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 및 노력도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기관별 업무 분장표를 점검하였다.

이을러, 회의를 마친 후에 대시민 스트리트 캠페인을 개최하고 청렴문구를 담은 리플릿과 청렴 소독티슈 등을 배포하여 대구 시민들이 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Daegu Infrastructure Corporation

청렴 뮤직비디오 ‘떳떳해지자’

대구시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8월 청렴을 주제로 하는 ‘떳떳해지자’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대구 시내에 위치한 전광판을 통해 방영하고 있다. 대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렴을 주제로 하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였으며, 뮤직비디오 촬영은 대구콘서트하우스, 예술발전소, 감사관실 등에서 이뤄졌다.

다른 멘트 없이 ‘떳떳해지자’라는 노랫말만 6번 반복되는 중독성있는 가사의 라틴 계열 댄스곡과 함께 대구시립무용단의 독특한 구성의 춤사위를 담아 개성있는 방식으로 청렴을 알리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대구시의 하반기 시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공단에서는 청렴 뮤직비디오를 본사 및 두류수영장 등 7개 사업소에 위치한 전광판에 송출하였고 나드리콜 차량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도 홍보하는 등 직원 및 이용객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였다.





국가품질경영대회 산업부 장관상 수상



공단은 지난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1년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서비스혁신 리더십, 서비스경영 활동성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서비스품질 혁신활동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서비스혁신 부문 국가품질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반탐사기술 전시회 전국 최초 개최

공단은 지난 6월 국토안전관리원과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반탐사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 및 기술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11월에는 '지반탐사기술(공동조사) 전시회'를 동반 개최했다.

본 전시회는 대구시, 구청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지하시설물관리자 1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토안전관리원 보유 도로지반조사차량(RSV) 시연, 국내 공동조사 장비 전시 및 홍보를 위해 5개 업체가 참가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하매설물 상부 지반을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관리자들과 민간 공동조사·조사장비 업체들 간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공동조사 산업 성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 점검 시행능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상 공영주차장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추진

공단은 지난 11월 지역 주차관제 업체인 (주)한맥아이피에스와 노상 공영주차장 스마트 자동화 주차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한맥아이피에스의 AI, 딥러닝 영상 솔루션 연계 적용을 통하여 공단이 추진 중인 '노상주차장 스마트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서문시장을 비롯해 대구시 전역에 총 88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주차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중 40개의 노외주차장에 스마트 자동화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향후 노상주차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설공단 사격팀 전국사격대회 단체전 1위



공단 실업 사격팀이 제37회 대한사격연맹회장기 전국 사격대회 단체전에서 1위를 기록했다.

대구시설공단 실업 사격팀은 2018년 1월 창단되어 조현진 감독의 지도 아래 신현우, 오태근, 조민기, 정창희 등 6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전국체전, 올림픽 등 국·내외 주요 사격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성

적을 거두고 있다. 공단에서는 2022년 아시아 공기총 선수권 대회가 대구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는 만큼 공단 사격팀이 국내를 넘어 세계무대에서도 활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재문화체육센터 홈 트레이닝 동영상 제작

서재문화체육센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홈 트레이닝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지난해 14편을 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저강도 관절 강화 운동으로 구성했다. 서재문화체육센터 헬스 강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진 이번 홈 트레이닝 영상은 총 5회에 걸쳐 전신 스트레칭, 체력증진, 무릎관절, 척추관절, 어깨관절 강화 운동법 순으로 업로드 되었으며 Q&A 등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대구실내빙상장, 얼음썰매 신설



대구실내빙상장은 11월 7일부터 매주 일요일 얼음썰매 전용 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온 가족이 얼음썰매를 타며 다채로운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구실내빙상장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얼음서바이벌 게임도 진행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 및 벽화그리기 봉사

공단은 임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사랑나눔봉사단 기금으로 지난 10월 남구 일대에서 남구자원봉사센터 및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도심지 내 주거취약 지역을 찾아 가로등 설치 및 벽화그리기 봉사를 실시했다.

또한, 전기, 건축 분야 전문 인력과 도배 교육 과정을 수료한 직원들이 참여해 전기시설 및 등기구 교체와 벽면 도배 등을 직접 실시하였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공단은 지난 11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본사 인근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축, 전기, 소방 등 각 분야에 대한 위험요소와 점검항목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위해 점검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가졌다.

또한, 캠페인 후에는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테마로 시설관리 경험이 풍부한 직원 20명이

참여하여 공단 내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을 추진하였다.

공단은 이번 캠페인 이외에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계절별 테마 중심의 안전점검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드리콜 서포터즈 가을 나들이 행사

공단은 가을을 맞아 지난 10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 나들이를 하기 어려운 나드리콜 이용객들과 함께 화원동산 사문진 나루터에서 가을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직원들이 휠체어를 끌어주며 나드리콜 이용객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도 만끽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사랑니농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공단 임직원 50여 명은 지난 10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위해 1사촌 자매결연마을인 경북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사과를 수확하며 구슬땀을 흘렸으며, 사과와 사과즙 등 농산물을 공동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공단은 2009년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 마을과 1사촌 자매결연한 뒤 12년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사과 적과와 수확 등 농가 일손돕기, 농산물 공동구매 등을 추진해 도농 화합과 지역 상생발전에 앞장서 오고 있다.

명복공원 치유전시회

공단은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족 및 고객들을 위해 2021년 제4회 치유전시회를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최하였다. 치유전시회는 한국예술문화캘리그래피협회 소속 작가 김미영, 김정희, 성희연, 이숙희, 조면룡 작가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명복공원 목련대기실 등 3개소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주제의 작품 18점을 게시하였다. 올해로 5년째 개최되고 있는 명복공원의 미술전시는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유족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알쓸신청

알아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청렴사전

요점 쏙쏙!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 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 총 10가지의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신고·제출 의무

- 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 1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2 가족채용 제한
-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부정청구 거름망!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이다. 누구든지 부정청구 내용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하며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 및 명단공표 대상은 아래와 같다.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청렴 롤모델, 독일로 떠나다



Germany

2010년 51세로 독일 최연소 대통령이 된 크리스티안 볼프는 19개월 만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였다. 주지사 시절 부동산 구매를 위해 지인으로부터 당시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연 4% 금리로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청렴 선도 국가인 독일은 이처럼 공직 비리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도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청렴문화를 이끈 원동력으로는 먼저 합리적인 규제를 들 수 있다. 독일에서 1997년 제정된 ‘반부패법’으로 뇌물을 주고 받을 때 부정한 혐의 혹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대가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이익수수죄로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과 맥락이 같지만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여 연방정부, 주정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재단, 주식회사 등 민간단체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독일을 대표하는 전기전자 기업인 지멘스(SIEMENS)의 사례는 민간에서도 청렴문화 조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2006년 말 지멘스는 공공횡령, 뇌물 제공 사실이 드러나 3조가 넘는 벌금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클린 비즈니스’, ‘준법경영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데, 특히 준법경영에 대한 보상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어떤 언어로든 신고 가능한 내부 고발 핫라인 ‘텔어스(Tell us)’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직원과 외부인들이 익명으로 내부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외부 변호사를 독립적으로 위촉하는 등 과감한 준법감시제도를 실시하였다.

부패에 대한 제로 tollerance(무관용) 정책을 지속한 결과,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로 선정되는 등 청렴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처럼 독일이 청렴 선두국가로 우뚝 서게 된 것은 공공과 민간 영역이 청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한 결과일 것이다. 우리 또한 전 국민이 정직하고 깨끗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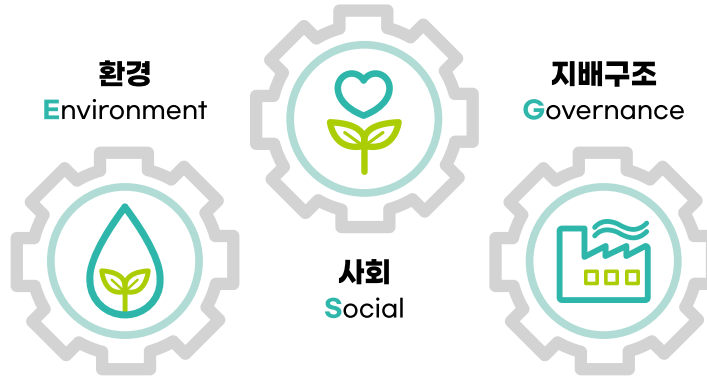
떠오르는 기업 핵심 역량!

ESG 경영

ESG 경영은 기존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확장하여 구체화한 개념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경영 방침이다. ESG 경영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저탄소·친환경 부문 확대(E),
사회책임경영 실시(S), 조직 청렴성 강화(G) 등이 있다.



ESG 경영



특히 ESG 중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기업윤리를 준수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는 정부,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평가요소로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기업윤리, 뇌물 및 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공정경쟁, 내부고발자 보호 등이 있다.



특히, 2021년 들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도 점차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ESG는 기업의 경영전략뿐 아니라 국가 전체 혁신의 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30대 그룹은 2030년까지 ESG에 153조를 투자할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1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처음으로 전 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이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ESG 경영과 관련하여 기업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야로 지배구조가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지금, 윤리 경영에 먼저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자기 분야의 폴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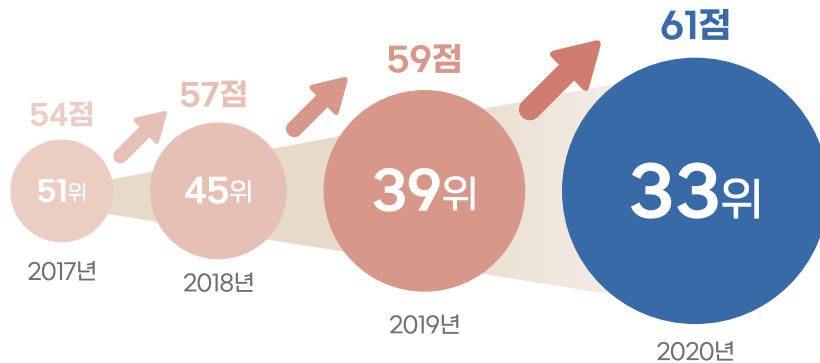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순위이다. 부패인식지수는 최근 3~4년간의 자료들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며,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경쟁력보고서 및 갤럽의 설문조사 등 7~8개 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다. 갤럽 설문 조사는 대상 국가의 기업인, 정세분석가, 언론인을 상대로 세계 각국 공무원과 정치인의 뇌물 수수와 공금 착복 등 17개 항목의 설문 조사를 종합해 수치를 산출한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중인데, 2017년 54점(51위), 2018년 57점(45위), 2019년 59점(39위), 2020년 61점(33위)을 기록해 매년 역대 최고 점수를 갱신하고 있다.



이러한 청렴물결의 시작점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부터이다. 청탁금지법은 2012년 발의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크게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청탁, 금품수수가 사라지고 청렴, 공정 문화가 자리 잡는 등 청렴바람이 불고 있다.

법 제정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 주도로 채용·교육·납세 등 다양한 분야의 부패현안을 발굴·대응하여 사회 다방면의 선진화 노력을 기울였다. 부패인식지수의 꾸준한 상승의 배경에는 이러한 청렴개혁 의지가 있었다.

나날이 치솟는 청렴역량을 인정받아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반부패국제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를 개최하게 되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당시 회의는 코로나 시국을 반영하여 화상으로 개최되었는데, 2003년 제11차 회의에 이어 제19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IACC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렴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제는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해 정부 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시행 등 반부패·공정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제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청렴기준 강화,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대외 신인도를 저해하는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사회전반의 반부패·공정 문화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져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길 기원해 본다.

대구시설공단과 함께하는

청렴퀴즈 with QR

참여기한

2022. 2. 28. 까지



Quiz
1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Quiz
2

국가활동의 책임성을 확장하고 국제적 · 국가적 부패의 극복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NGO)로, 부패인식지수(CPI)를 산출하고 있는 이 기구는?

Quiz
3

제19차 반부패국제회의가 개최된 국가는?

Quiz
4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키워드는?

Quiz
5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고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법은?

참여
방법

휴대전화 카메라로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답안을 순서대로 입력해 주세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주어진 문제의 정답을 모두 맞추신 분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제공됩니다.

익명으로 소통하는 헬프라인
우리 함께 휘슬 불어요!



‘청렴소통지킴이’와 함께 소통과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청렴(淸)만 생각(思)하며 나아갑니다(進)

청사진

淸 思 進

대구시설공단이 청렴한 세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부패·공익 신고 센터

전화 신고



053-603-1177

온라인 신고



www.dgsisul.or.kr

익명 신고



QR코드 스캔

두류수영장

대구시체육회